

便秘의 原因에 對한 文獻的 考察

張仁圭 · 朴東源 · 柳逢夏 · 申鉉沂

I. 緒 論

便秘는 消化器疾患과 그 外 여러가지 疾患에서 2次的으로 誘發되는 症狀으로서, 그 自體로서는 身體的 쇠약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그 自體의 苦痛뿐 아니라 그로 因하여 誘發되는 肛門疾患(潰瘍, 痔疾 等), 腹脹痛悶, 身重, 食欲不振 等으로 苦痛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便秘는 大便이 굳은 狀態뿐 아니라 小量(1日 80g 以下), 드문 排便狀態 까지도 포함하며, 內經⁸⁾ 至眞要大論에 「太陰司天 濕淫所勝……大便難」을 비롯하여 大便不通^{7,13,25)}, 大便閉⁹⁾, 大便閉結²⁴⁾ 大便秘難¹²⁾, 大便燥結^{19,26)} 大便結燥¹⁷⁾ 大便秘結^{6,7,15,22)}, 大便澁滯²³⁾ 等 多樣하게 表現되었는데 著者는 이를 모두 便秘에 포함시켰다.

그 原因은 西醫學의으로는 크게 器質的 異常과 機能的 異常으로 分할 수 있는데 機能的 異常으로는 大腸의 運動減退, 精神的 Stress, 直腸의 排便機能障礙 等이고, 器質的 異常으로는 先天的 巨大結腸症, 大腸의 惡性 腫瘍 等이며, 東醫學의으로는 飲食失節, 七情, 外感, 勞倦傷 等 여러 原因에 位하여 誘發되는데, 그 治療 또한 容易한 것은 아니다.

이에 論者는 우선 便秘의 原因 및 種類를 整理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帝內經

- 金匱眞言論：北方黑色이 入通於腎하여 開竅於二陰한다.
- 陰陽應象大論：清陽은 上竅로 出하고, 濁陰은 下竅로 出한다. …… 陰味

는 下竅로 出하고 陽氣는 上竅로 出한다.

- 氣 厥 論：膀胱移熱於小腸하여 腸腸不便한다.
- 厥 論：太陰之厥則 腹滿鎮脹하고 後不利한다.
- 至眞要大論：太陰司天에 濕淫이 所勝하여……大便難한다.

2. 金匱要略

- 消渴小便利 淋病脈證并治 第十三：
 - 趺陽脈이 數하고 胃中熱한 즉 消穀引飲하고 大便은 必堅하고 小便은 數하다.
 - 趺陽脈이 浮而數한데 浮한 것은 爲氣이고 數한 것은 爲消穀하여 大堅하다.

3. 巢氏諸病原候總論

- 將適失宣하고 犯溫過度하고 散勢不宜하여 熱氣가 積在腸胃하여 大便이 秘難한다.

4. 外臺秘要

- 大便難者의 病源은 五臟이 不調하여 陰陽이 腸胃之間에 擁塞되어 其腸胃는 本實한데 또 冷熱之氣가 結聚하여 不宜하여 大便難이 된다.

5. 儒門事親

- 老人久病에 大便澁滯하여 不通한 者는 神功丸, 麻仁丸, 四生丸을 用한다.

6. 東垣十書

- 腎은 五液을 主官하는 바 津液이 潤하면 大便이 如常하고, 만약에 饑飽失節, 勞役過度, 損氣胃氣, 食辛熱味厚之物하게 되면 火邪가 血中에 潛伏하여 眞陰津液이 虧少하여 大便이 結燥한다.

種類로는 熱燥, 風燥, 陽結, 陰結, 年老氣虛로 因한 津液不足 등이 있다.

7. 丹溪心法

- 燥結血少하여 不能潤澤한 것은 陰을 養한다.
- 燥結之症에는 虛實 二者가 있는데 風寒邪가 外에서 入한 것과 七氣火가 自內에서 起한 것이다.
- 濕熱이 拂鬱하여 燥結한 것은 實이요,
- 病久飲食少進하거나 年高將息失宜는 血液이 枯固하여 燥結한 것은 虛다.

8. 醫學正傳

- 그 原因은 房勞過度, 陰食失節, 恣飲酒漿, 過食辛熱, 飲食之火 起於脾胃, 淫欲之火 起於命門하여 火盛水虧하여 津液이 不生한 故로 傳道失常하여서 점차 燥하여진다.

그 種類는 風燥, 熱燥, 陽結, 陰結, 氣滯結, 年高血少 津液枯涸, 脫血, 津液暴竭 등이 있다.

9. 醫學綱目

- 大便不 통과 產後大便閉로 區分하였다.

10. 醫學入門

- 燥 結
燥에는 風燥, 熱燥, 火燥, 氣血虛燥가 있고, 結에는 陽結, 陰結, 年高氣血虛結이 있다.
- 燥는 少陰에 屬하는데 津液不足으로 辛으로서 潤之한다.
結은 太陰에 屬하는데 燥糞이 있는데 苦로서 瀉之한다.
- 그 原因으로는 濕熱拂鬱, 發汗, 利少便過多, 產後失血 등으로 因한 津少, 臟寒, 臟冷, 七情氣閉, 痰滯不通, 傷熱物, 脾胃伏火 등이다.

11. 萬病回春

- 七種으로 區分하였는데 熱閉, 虛閉, 津液枯渴而閉, 風閉, 血氣枯燥而閉, 血虛而閉, 實熱而閉 등으로 區分하였다.
- 熱閉는 身熱 煩渴 大便不通이고, 虛閉는 久病으로 虛하여 大便不通이며, 津液枯竭而閉는 汗出多로 因하여 大便不通이고, 風閉는 風症으로 大便不通이며, 血氣枯燥而閉는 老人에 大便不通이고, 血虛而閉는 虛弱한 妊産婦나 失血로 大便不通이며, 實熱而閉는 辛熱之物을 多食하여 大便不通이다.

12. 六科準繩

- 胃虛하면서 秘者는 不能飲食 小便清利하다.
胃氣實者는 秘物이요, 胃氣虛者는 秘氣이다.
- 種類로는 風秘, 冷秘, 氣秘, 熱秘와 老人津液乾燥나 婦人分産으로 亡血 또는, 發汗利小便 或은 病後血氣未復 등이다.

13. 東醫寶鑑

- 大便秘結
仲景을 引用하여 陰結과 陽結을 記하였고, 入門을 引用하여 燥結을 說明하였으며, 易老을 引用하여 胃實而秘와 胃虛而秘를 說明하였다. 그 外에 血燥, 氣燥, 風燥, 氣滯, 婦人秘結 등을 說明하였다.
- 老人秘結
藏府秘澁하고 津液이 少한 것이다.
- 大便不通
大便秘結은 항상 乾燥하고 放下하기 곤란한 것이고, 大便不통은 수일간 通하지 못하고 閉塞 脹滿한 것이다. 그 原因은 大腸의 狹熱, 大腸의 狹冷, 宿

食留滯, 風氣燔灼

14. 醫宗必讀

胃實而秘, 胃虛而秘, 熱秘, 冷秘, 氣秘, 風秘, 老年津液乾枯, 婦人產後亡血, 發汗利小便, 病後血氣未復 등으로 區分하였다.

15. 類證治裁

陰結, 陽結, 胃實, 胃虛, 熱秘, 冷秘, 風秘, 氣秘, 脾約症으로 說明하였다.

16. 景岳全書

古方に 虛秘, 氣秘, 寒秘, 熱秘, 濕秘 或은 熱燥, 風燥, 陽結, 陰結 등으로 區分한 것을 다시 分類하여 陰結과 陽結로 크게 區分하였다.

그 原因은 陽明熱結과 腎疾患(腎熱, 腎寒, 腎虛, 腎乾燥 等)으로 보았다.

17. 醫學心悟

實閉, 虛閉, 熱閉, 冷閉로 區分하였다. 虛閉는 老弱人의 精血不足, 新產婦人의 氣血乾枯로 腸胃가 不潤한 것이다.

18. 醫門寶鑑

秘結者는 大便秘 또는 不通이며, 腎은 津液을 主하므로 腎實則 津液이 足하여 便潤하고, 腎虛則 津液이 竭하여 便結하다.

그 原因은 房勞過多, 飲食失節이다. 飲食의 火는 脾胃에서 起하고, 淫慾之火는 命門에서 起하는데, 火盛水虧한 즉 津液이 不生하고, 傳道가 失常하여 점차 燥結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陰結과 陽結로 나눌 수 있다.

細分하여 나누면 宿食秘, 寒秘, 熱秘, 氣秘, 燥秘, 痰秘, 虛秘, 風秘, 脾約症, 婦人產前 產後 大便閉 等이다.

19. 辨證奇聞

그 原因을 腎水之涸, 腎火之微, 胃火之沸騰, 火之作崇, 肝火, 脾火之作崇, 心火之焚燒, 肺經之火旺, 氣虛而不能推送, 畜血而不散 등으로 보았다.

20. 濟衆新編

○ 火가 血中에 伏하여 津液을 耗散하여 甚하면 不通하며, 腸冷하여 不通하기도 한다.

○ 老人秘結은 津液이 少한 것이다.

○ 脾約症은 胃强脾弱하여 津液이 但輸膀胱한 故로 尿數便難하다.

21. 中醫內科學

原因을 有燥熱內結, 津液不足, 情緒不安, 氣血不足, 勞倦內傷, 氣鬱有滯 등으로 區分하였다.

그 種類는 크게 實秘와 虛秘며, 實秘는 熱秘, 氣秘로, 虛秘는 氣虛, 血虛, 冷秘로 分類하였다.

22. 診療要鑑

易老의 說을 引用하여 實秘와 虛秘로 나누고, 實秘는 腸內充實을, 虛秘는 氣虛를 말하며, 胃虛 및 胃實로 因한 秘結을 說明하였다.

原因은 東垣의 說을 引用하였다.

23. 中醫臨床手冊

熱秘, 冷秘, 氣秘, 虛秘로 區分하였다.

24. 內科

原因을 苦飢勞役, 或食辛熱, 火邪伏於血中하여 耗散眞陰, 津液虧少, 年老氣虛, 津液不足 등으로 보았다.

25. 東醫消化器內科學

原因은 東垣의 說을 引用하였고, 種類는 陽結, 陰結, 宿食秘, 熱秘, 寒秘, 氣秘, 燥秘, 婦人便秘, 老人便秘, 脾約證 等이다

III. 總括 및 考察

以上 便秘의 原因에 關하여 本論에 提示된 文獻을 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內經⁸⁾ 金匱眞言論에서 腎이 二陰에 關여한다 하였고, 氣厥論에서는 膀胱移熱於小腸 膈腸不便한다 하였으며, 至眞要大論에서는 濕淫所

勝이 原因이라 하였다. 巢¹²⁾는 將適失宜, 犯溫過度 散勢不宜하여 熱氣積在腸胃하여 大便秘難한다 하였으며, 王¹⁴⁾은 五臟과 三焦가 調和되지 않아서 冷熱이 腸胃之間에 擁塞되어 大便秘이 된다고 하였고, 李¹⁷⁾는 腎은 五液을 主官하는 바 津液이 潤滑하면 大便이 如常하고, 만약 饑飽失節, 勞役過度, 損氣胃氣, 食辛熱味厚之物 하게 되면 火邪가 血中에 潛伏하여 眞陰津液이 虧少하여 大便이 結燥하다 하였다.

朱²⁶⁾는 風寒邪의 침입, 七氣火, 血液枯涸를 原因이라 하였고, 虞¹⁵⁾는 飲食之火 淫欲之火로 火盛水虧한다 하였으며, 李¹⁹⁾는 燥와 結로

表現하였으며 濕熱, 津少, 臟寒(冷), 七情氣閉, 痰滯, 傷熱物, 脾胃伏火 등이 原因이라 하였다.

龔⁹⁾는 大便秘를 七種으로 區分하였고, 許⁷⁾는 大便秘結과 大便不通으로 나누어 說明하였고, 李¹⁸⁾는 胃實, 胃虛, 熱, 冷, 氣, 風, 老人, 婦人秘 등으로 區分하였으며, 張²²⁾는 古方에 여러 種類의 秘를 크게 陰結, 陽結로 區分하였다.

周⁶⁾는 虞¹⁵⁾와 張²²⁾에 理論을 따랐으며, 金⁹⁾과 張⁵⁾는 李¹⁷⁾의 原因說을 따랐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表 2)

表 1. 便秘의 種類

分 類	表 現	
六 氣	寒(冷)秘, 熱秘, 風秘, 燥秘	
飲 食 傷	陰食秘 宿食秘	
陰 陽	陰 結 陽結	
虛 實	虛 秘	氣虛秘 血虛秘 胃虛秘 脾虛秘 腎虛秘
	實 秘	胃實秘
七 情	氣秘 氣燥 氣滯秘	
脾 約 症		

表 2. 便秘의 原因

分 類	表 現 例	
六氣關係	風寒邪外入 燥熱內結 濕淫所勝 濕熱佛鬱 火在血中	
臟腑關係	膀胱移熱於小腸 陽明熱結 熱氣積在腸胃 冷熱擁塞在腸胃之間 五臟火 脾胃伏火 損氣胃	
性 關係	淫欲之火 房勞過度	
飲 食 關係	飢飽失節 飲食失節 飲食之火 恣飲酒漿 食辛熱味厚之物 過食辛熱 傷熱物	
勞 倦 傷	勞役過度 勞倦內傷	
七情關係	七情氣閉 情緒不安 七氣火	
氣血關係	氣	氣滯 氣鬱有滯
	血	血液枯涸 脫血 產後失血 蓄血不散
	氣血	病後血氣未復 氣血不足
津 液	津液暴竭 津少 發汗利小便 津液不足	
其 他	痰 滯	

西洋醫學에서 便秘는 神經, 血管 또는 腸의 筋統合性 또는 그와 關聯된 排便反射 및 筋群을 무엇인가가 障礙함으로써 發生한다고 보며⁴⁾, 便秘의 정의는 매우 건조하고 적은 량의 排便 (50gm 以下/日)이나 드문 排便 ((2日보다 늦은)을 말한다. ²⁷⁾

그 原因으로서는 고도의 感染症 (특히 中樞神經系), 急性腸間膜循環不全, 腎性疝痛 (renal colic), 腦血管發作 (C.V.A), 小腸 또는

大腸의 機械的閉塞, 有痛性肛門病變, 或 種의 藥物 (例, 마약, 대량의 진정제) 감정의 장애 감상선기능저하증, 주요한 정신병 등이다. ⁴⁾

이를 정리하여 보면 表 3과 같다.

東西醫學을 比較하여 보면 便秘에서 그 原因이 거의 大同小異한데, 西醫學에서는 飲食物外에 藥物, 胃腸管의 器質的 病變을 첨가하여 說明하고 있다.

表 3. 便秘의 原因

I. 胃腸管疾患에 의한 機能障礙		
1. 惡性 및 良性腫瘍		
2. 炎症性 腸疾患 (急性限局性小腸炎, 潰瘍性腸炎, 급성아메바病, 게실염)		
3. 過敏性 大腸症候群		
4. 巨大結腸症		
II. 全身的 異常으로 인한 2次的 機能障礙		
1. 임 신		
2. 감상선기능저하증		
3. 부감상선기능항진증		
4. 당뇨병		
III. 藥物效果로 인한 2次的 機能障礙		
1. 아편제	2. 신경차단제	3. 비흡수성 제산제
4. 항우울제	5. 조혈제	6. 이뇨제
IV. 排便反射의 障礙		
1. 항문 직장 질환 (항문潰瘍, 痔疾 等)		
2. 神經系 疾患		
3. 老 衰		
4. 불완전한 배변 및 식사습관, 완하제 남용, 심리적 장애		

IV. 結 論

1. 便秘의 原因은 다음과 같다.
 - 1) 飲食傷 (飲食失節, 辛熱之物的 섭취)
 - 2) 勞倦傷 (房勞過度, 勞役過度)
 - 3) 七情傷 (七情氣閉, 情緒不安)
 - 4) 六氣關係 (風, 寒, 濕, 燥, 火邪)
 - 5) 氣血關係 (血虛, 氣虛, 氣血虛)
2. 便秘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外感性 (寒(冷)秘, 熱秘, 風秘, 燥秘)
 - 2) 飲食傷 (飲食秘, 宿食秘)
 - 3) 陰陽 (陰結, 陽結)
 - 4) 虛實 { 虛秘~氣虛秘, 血虛秘, 胃虛秘,
 脾虛秘, 膚虛秘
 實秘~胃實秘
 - 5) 七情 (氣秘)
 - 6) 脾約症
3. 上記 原因外에 胃腸管의 器質的 病變과 藥物에 依한 原因을 추가하면 좋을 것으로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109, 1975.
2.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上卷 pp.286~287, 1974.
3. 柳基遠: 內科,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p.24, 1977.
4. 李文鎬外: 內科學, 서울, 박애출판사, pp.112~113, 944~945, 1977.
5. 張仁圭: 東醫消化器內科學, 서울, 科學教育社, pp.111~120, 1985.
6.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pp.283~286, 1975.
7. 許 浚: 東醫寶鑑, 서울, 杏林書院, pp.194~198, 1972
8. 洪元植編: 精交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17, 18, 76, 91, 180, 1981.

9.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上卷 p.249, 1972.
10. 樓 英: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卷二十三 p.70, 1973.
11.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上海, 商務印書館, p.77, 1975.
12. 巢元方: 巢氏諸病源候總論, 台中, 昭人出版社, 卷6 p.16, 1972.
13.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翰成社, 證治準繩 pp.334~337, 1982.
14. 王 燾: 外臺秘要, 서울, 成輔社, p.306, 1975.
15. 虞 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90, 1981.
16. 原安徽中醫學院: 中醫臨床手冊, 서울, 成輔社, p.80, 1983
17.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州出版社, 蘭室秘藏 下卷 p.1, 1981.
18. 李中梓: 醫宗必讀,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323, 1976.
19. 李 梴: 醫學入門,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p.420, 1968
20. 林珮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p.139, 1980.
21. 張 機: 仲景全書, 서울, 杏林出版社, pp.383~384,
22. 張介賓: 景岳全書,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pp.582~588, 1976.
23. 張從正: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卷四, p.13, 1978.
24. 錢 松: 辨證奇聞, 서울, 杏林書院, pp.213~217, 1973.
25. 程國彭: 醫學心悟, 台北, 旋風出版社, pp.197~198, 1970.
26. 朱震亨: 丹溪心法, 台北, 五州出版社, 卷13, p.4~6, 1981.
27. H.Harold Friedman: Problem-Oriented

Medical Diagnosis, Boston.
Little, Brawn and Company,
Second Edition, pp.167 ~ 169,
1979.